

◇연부조직 육종에 의한 전이성 폐암 절제술

박종호, 백희중, 조재일

원자력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연부조직 육종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예후에도 차이는 있으나 전이 양상 등은 비슷하여 같이 취급되고 있다. 특히 폐장으로의 전이가 매우 흔한 질환이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과 더불어 전이성 폐암 절제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전이성 폐암 절제술의 효용성과 술 후 생존률 등을 알아보는데 있었다.

방법 : 1986년부터 1996년 사이에 원자력병원에서 연부조직 육종 진단을 받은 환자 중 폐장으로 전이가 있으면서 전이성 폐암 절제술을 시술 받은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술군을 같은 기간 중 폐장으로의 전이가 있었으나 수술을 받지 않은 61명의 환자와 생존률을 비교하여 보았다.

결과 : 모두 12례의 전이성 폐암 절제술이 시행되었다. 평균 연령은 38.4세 이었으며 남녀비는 8:4 이었다. 술 전 병기는 6명이 stage III 이었고, 6명이 stage IV 이었다. 조직학적 분류상 횡문 근육종 환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절개 방법은 6례에서 흉골 정중절개술을 이용 하였고 6례에서는 일측 후측방 개흉술을 사용 하였다. 폐절제술은 대부분 썬기 절제술을 하였으며 1례의 폐엽 절제술이 시행 되기도 하였다. 전이성 폐암의 분포를 보면 우하엽에 가장 많이 발생 되었으며, 수술 1례당 7.3개의 종양이 적출 되었다. 중앙 생존기간은 32.1개월 이었고, 5년 생존률은 40.1% 이었으며, 평균 추적기간은 35.3개월 이었다. 그리고 전이성 폐암 절제술을 받지 않은 61명의 stage III, IV 환자들의 중앙 생존기간은 8.1개월에 불과 하였다. [log-rank test, $p < 0.0001$] 관찰 시점에서 전이성 폐암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5명이 생존하고 있었으나, 비교군에서는 9명만이 생존하고 있었다.

결론 : 연부조직 육종에 의한 전이성 폐암의 치료에 전이성 폐암 절제술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전이성 폐암 절제술 대상에서 벗어난 stage IV 환자에서도 생존률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흉부외과 수술 영역의 확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책임저자:조재일(원자력병원 흉부외과) 발표자:박종호(원자력병원 흉부외과)